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3(土)	24(日)
	
흐려져 비 20 / 27℃	흐리고 비 20 / 24℃

News

- 광주·경북의회 갈등 확산 ②
- 김동길씨 거리청소 30년 ③
- 중학교야 '광주 찬가' ⑮

Jeollado

- 그사람-배종열 前전농의장 ⑦



Entertainment

- 영화 감독들 '인방 침공' ⑧
- 올 여름 애니메이션 세상 ⑨

Books

- 화초가 인간 길들인다? ⑩
- 행복 어떻게 변해왔나 ⑪

Wellbeing

- 식품 탐구-복분자 ⑬



Trend & Style

- 장마철 화사한 옷 입자 ⑭

정치에 발목 잡힌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한나라당, 특별법 소위 불참...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한나라당 의원들이 F1특별법(포틀러인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제동을 걸면서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관련기사 2면〉

특히, 한나라당은 서남권 특별법과 F1 특별법 등 전남지역 최대 현안 사업과 관련, 내용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잇따라 탄지를 걸고 있어 지역 여론을 외면하는 '딴나라당'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F1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 반쪽 심의를 하는데 그쳤다.

범여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만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는 국고 지원 문제와 부지 제공 문제만 확보

된다면 그동안 지적돼왔던 공공성 부분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특혜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담배 광고 부분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지병문, 정정래 의원 등은 전남도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F1 특별법의 일부를 수정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들 의원들은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26일 전체회의에서 F1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25일 열리는 국회 문광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문제가 가닥 잡히지 않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안심사 소위 불참이 이어진다면 F1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6월 국회가 다음달 3일 폐회된다. 6월 국회가 다음달 3일 폐회된다. 6월 국회가 다음달 3일 폐회된다. 6월 국회가 다음달 3일 폐회된다.

이에 따라 F1 특별법이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지역 여론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전남 지역 최대 현안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반 한나라당 정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F1 특별법이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광주·전남지역의 여론은 반 한나라당으로 집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北, 영변원자로 즉각 폐쇄하겠다”

힐 차관보 '訪北 기자회견'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빠른 시일 내 폐쇄할 의사가 있으며 2·13합의 이행은 물론 7월초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개최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피력했다고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22일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우리는 2·13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은 영변 원자로의 즉각 폐쇄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방북에서 느낀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2월의 합의 조치에 들어간 것이며 불능화를 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면서 “이번에 일부 논의되긴 했지만 불능화의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가능한 한 조기에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갖자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6자 외무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측도 7월 초순에 6자 수석대표회담을 하고 그 이후 적당한 시기에 외무장관 회담을 하는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힐 차관보는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

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만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측과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에 대해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측과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리스트를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해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연합뉴스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암동본실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암동본실 1598-5051 ▶ T.(061)360-5000

■ 광주·전남 첫 결성 대주건설 '장애인 체육선수단'



대주건설 소속 '장애인체육선수단'이 22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니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꿈에 그리던 직업선수 됐어요”

2004년 아테네 장애인올림픽 남자탁구 최상장애부부 단식과 복식에서 2관왕을 차지한 금메달리스트 김영건(24·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는 요즘 연습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꿈에 그리던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생산직이나 사무직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탁구를 맘껏 할 수 있는 있는 선수 신분으로 직장을 잡은 것이다.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18명으로 구성된 지체장애 1~3급...“마음껏 운동하게 돼 기뻐요”

김씨는 “라켓이나 공을 사고, 연습장을 오가는 교통비로 한달에 20만원 가량의 자비를 들여 운동을 했었는데 이젠 소속팀이 생겨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좋다”며 “목표는 2008년 베이징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2연패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중학교 때 척수 감염으로 인해 하체가 마비된 1급 장애인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운동선수들로 구성된 실업팀이 생겼다. 대주건설은 22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탁구(12명)·배구(2명)·역도(3명)·사격(1명) 선수 18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체육선수단' 발족식을 가졌다. 대주건설 장애인선수단 18명은 모두 광주 거주자로,

지체 장애 1급부터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들이다.

대주건설이 장애인선수단을 발족한 것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와 광주지방노동청, 대주건설 등 9개 건설업체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희망숲 1.2사업'에 따른 것이다. '희망숲 1.2사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의무율이 '1% 이하인 곳은 줄이고, 2% 이상인 곳을 늘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 고용촉진팀 서은영(37) 차장은 “광주 지역의 대기업은 대부분 건설업체여서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착안해 벌이게 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지난 2005년 말 기준 30명이던 9개 건설업체의 장애인 취업자 수가 지난해 말 현재 57명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선수단을 발족한 대주건설의 경우 지난해 11명을 고용했고, 올해 선수단 18명을 추가 고용하면서 장애인 고용률 1%를 넘어섰다. 1% 이하인 경우 추가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대주건설 관리팀 임형직 부장은 “지난해 실제 고용한 장애인이 18명이지만 부족을 등을 이유로 2명 이하의 직원을 때렸다”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장애인 선수단 운영'이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률을 늘리고, 이들이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 '장애인 선수단 발족'의 가장 큰 효과다. 지난해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 역도 48kg급에서 132.5kg을 들어 동메달을 차지한 지체장애 1급 최근진(31·광주시 북구 망월동)씨는 “첫 월급을 받게 되면 근력강화제 등 운동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사용하겠다”며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겠다”고 다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신동의 심장-비타민 유인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필: 918-0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청부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우리가족 활력에너지

비타민·씨

THE KOREA'S Most Admired COMPANY

유인양행 200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세 Star 3위 (제약부문 1위)

1일(아침·저녁) 2정 **우리가족의 힘-비타민씨**

■비타민씨에 함유된 비타민B군과 비타민C는 수용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유인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 부산(051)462-4973 • 대구(053)752-0515 • 광주(062)382-5400 • 대전(042)627-9003 *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합니다. (02-380-1658 www.kfda.go.kr)